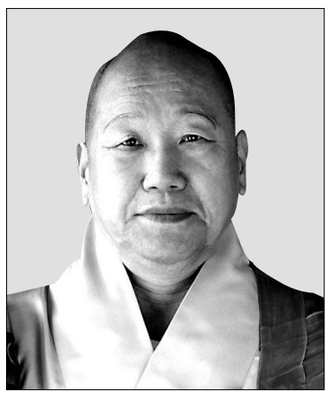
대신심 · 대용맹심으로 간절히 화두를 챙기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전기대용부사의(全機大用不思議)라, 삼세불조도삼천(三世佛祖倒三千)이로다. 유의기시첨의기(有意氣時添意氣)하고 불풍류처야풍류(不風流處也風流)로다.

온전한 기틀과 큰 용(用)은 생각하고 의논하지 못하는지라,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도 삼천 리 밖에 거꾸러짐이로다. 뜻 기운이 있는 때에 뜻 기운을 더하고 풍류가 없는 곳에 또한 풍류가 있게 함이로다.

금일은 정유년 동안거(冬安居) 결제일이라.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들은 시간의 신속(迅速)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구름이 허공중에 두둥실 떠 있다가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인생도 이와 같이 이 사바세계에 잠시 머물렀다가 구름처럼 가뭇없이 사라짐이라.

사람이 사대육신(四大六身)의 형상을 이루고 있지만 숨을 들이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바로 내생(來生)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나고 죽는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다.

내생이 목전(目前)에 곧 닥쳐오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시비장단(是非長短)에 허비해 버린다면 또 다시 윤회(輪廻)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 모든 시비는 다 놓아 버리고 오직 자기의 본분사(本分事)를 밝히는 이 일을 해야 한 생(生)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사는 것이다. 인생백년이 길다고 해도 참선수행의 한나절 한가로움에 미치지 못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있느냐? 먼저 불법(佛法)의 정안(正眼)을 갖춘 선지식(善知識)을 만나서 올바른 참선지도를 받아 그대로 온전히 실천해야한다.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일상생활 가운데에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이다.

화두를 챙길 때는 아주 분명히 또렷또렷하게 화두를 챙기고 의심을 짓고, 챙기고 의심을 지어가야만 가지가지의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고 혼침(昏沈)도 달아나게 된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거나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화두는 벌써 십만 팔 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과거의 습기(習氣)로 인한 다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서 주인노릇을 하고 있게 된다. 참학인(參學人)들이 10년, 20년 동안을 참구(參究)해도 진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간절한 한 생각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반연(攀緣)은 끊고 시비장단(是非長短)은 모두 내려놓고 견성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신심(大信心)과 불타는 대용맹심(大勇猛心)을 내어 간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여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함이로다. 한 번을 챙겨도 뼈골에 사무치는 화두를 챙겨야만 공부에 진취(進取)가 있고 소득이 있는 법이다.

그렇게 정성껏 잡도리하다 보면, 화두가 익어져서 밤낮으로 흐르고 흐르다가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게 된다.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며칠이 지나가는지 몇 달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되니, 이것이 일념삼매(一念三昧)인 것이다.

이처럼 일념삼매가 시냇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지속될 때, 홀연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나게 되고 억겁다생(億劫多生)에 지은 업(業)이 빙소와해(氷消瓦解)되어 몰록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목전(目前)에 드러나게 되리니, 그러면 모든 땅덩어리가 변해서 황금이 되고. 넓은 바닷물이 변해서 감로(甘露)의 제호(醍醐)가 되리라.

이 금덩어리는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고 감로의 제호는 한 번 들이킴으로 인해서 많은 생에 지어온 업장이 당하(當下)에 소멸되니 만 냥의 황금을 허리에 차고서 목마(木馬)를 거꾸로 타고 해금강을 산책하며 인간과 천상의 지도자가 되고 모든 불조(佛祖)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리라.

〈하략〉

마음의 경계 없애야 참나 찾는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어느덧 정유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겨울한철 동안 수행자의 본분사를 해결하고자 용맹정진의 다짐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놈은 무엇인가?

〈화엄경〉에 "누구라도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할진데(若人欲識佛境界), 마땅히 그 뜻을 허공과 같이 맑게 할지니라(當淨其意如虛空). 망상(妄想)과 제취(諸趣)를 멀리 여의어 가지고(遠離妄想及諸趣), 마음자리 향한 바에 모두 걸림이 없게 할지니라(令心所向皆無碍)"고 이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휴선사도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은(迷心修道) 단지 무명만을 도울 뿐이다(但助無明)"라고 하셨고, 청매선사는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心不返照),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看經無益). 자성이 공한 줄 알지 못하면(不達性空), 좌선에 이익이 없다(坐禪無益)"라고 하셨습니다.

우주만상의 근본진리를 알고자 할진데, 걸림 없는 맑은 마음으로 완전히 경계를 없앤다면 마침내 밝은 지혜를 얻어서 참나를 찾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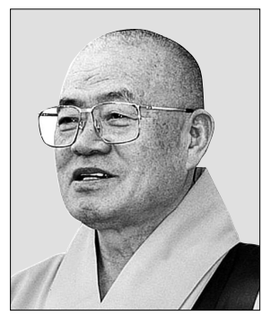
이것이 자유인의 진정한 행복이니 수행자는 이점을 명심하여 수행에 쉼 없이 매진하기 바랍니다.

태고명광편법계(太古明光 遍法界) 일등가파천년암(一燈可破千年暗). 제불보살공찬축(諸佛菩薩共讚祝) 육도함영등피안(六道含靈登彼岸).

태고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 하니
하나의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깨뜨린다
제불보살이 모두 칭찬하고 축하하니
육도의 영혼들이 모두 해탈하여 저 언덕에 오르네

본참 공안상 간절히 참구하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불매일물당당로(不昧一物堂堂露)하여 진개무여육합경(盡盖無餘六合境)이로다. 만고유유부증멸(萬古唯有不曾滅)하야 능제멸진무한류(能濟滅盡無限類)로다.

매하지 않는 한 물건이 당당히 드러나서 남음이 없이 상하사방의 경계를 덮었다 했도다. 만고에 오직 일찍이 멸하지 아니해서 능히 한정 없는 무리를 제도해 다하도다.

일탁주장운(一卓柱杖云) 하되 고인(古人)이 언모탄거해(言毛呑巨海) 하고 개납수미(芥納須彌)라 하니 구안납승(具眼衲僧)은 차도(且道)하라.

환가위실마(還可委悉?)아 양구(良久)에 "일할(一喝)"운 일지매화(一枝梅花)에 지대지춘(知大地春)이요 일적해수(一滴海水)에 족지창해미(足知蒼海味)로다.

욕득해탈도(欲得解脫道)인댄 수구삼종심(須具三種心)이니 일일대분심(一日大憤心)이요. 이일대용맹심(二日大勇猛心)이요 삼일대의심(三日大疑心)이니 일체(一切)를 도막사량(都莫思量)하고 어본참공안상(於本參公案上)에 절절참선(切切參禪)이어다.

고인이 말하기를 털끝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하니 안목을 갖춘 납승은 또 일러라! 도리어 알겠는가? 한 가지의 매화꽃에 대지의 봄이 옴을 알고 한 방울의 바닷물에 족히 창해의 물맛을 아는도다. 해탈도를 얻고져 할진댄 모름지기 삼종심을 갖출지니 첫째는 대분심이요, 둘째는 대용맹심이요, 셋째는 대의심이니 일체를 도모지 생각하지 말고 저 본참 공안상에 간절히 참구할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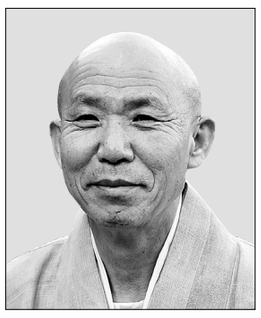
송왈(頌曰) 게송으로 이르시되

실참실오여래견(實參實悟如來見) 이요 자광광타사마족(自 他邪魔族)이로다. 약야불위광자타(若也不爲 自他)하면 기능사마침요란(豈能邪魔侵擾亂)이리요.

실참과 실오는 부처님의 견해요, 스스로 속이고 다른 이를 속이는 것은 사마의 권속이로다. 만약 스스로와 남을 속이지 아니하면 어찌 능히 사마가 침노하여 요란하리요. 〈하략〉

나귀는 우물을, 우물은 나귀를 보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조산본적(曹山本寂)선사께서 덕(德)상좌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법신(法身)은 허공과 같고 사물에 응(應)하여 형상을 나타냄은 마치 물에 비치는 달과 같다. 어떻게 해야 그 응하는 도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

"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열 가운데 여덟만 말했을 뿐이다."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물이 나귀를 쳐다보는 것과 같다."

우물을 보는 나귀도 무심(無心)하지만 나귀를 보는 우물은 더 무심합니다.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제가 무엇입니까?

아(我)와 타(他)가 사라지고 시(是)와 비(非)가 사라지고 내(內)와 외(外)가 사라지고 상(上)과 하(下)가 사라져 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물이 나귀를 쳐다보는 것처럼 백일무심(百日無心)의 정진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백일무심이 천일무심이 되고 천일무심이 만일무심이 되고 만일무심이 나귀해(驢年)가 올 때까지 항상 여일(如一)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제입니다.

무심의 경지를 얻겠다고 하면서 나귀의 앞뒤만 따라 다니는 것은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從)의 행동일 뿐입니다. 남을 따라할 뿐 자신만의 견처(見處)나 활발발(活潑潑)한 기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남을 따라다니는 종의 모습을 오인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일입니다. 결국 죽어서도 나귀의 배에서 태어나는 축생의 과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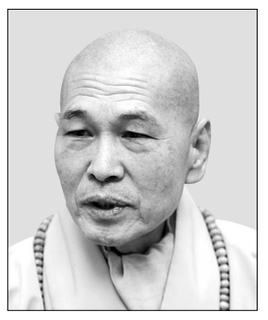
본적선사께서 덕상좌에게 일러준 '노새가 우물을 쳐다보고 우물이 노새를 쳐다본다'는 그 도리 제대로 알려면 그저 화두를 들고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제대중은 자기의 나귀다리(驢脚)를 꽉 묶어두고서 현사(玄沙)스님처럼 산마루를 넘지도 말고 보수(保壽)스님처럼 강을 건너지도 말아야 합니다. 혼침이라는 강물과 도거(掉擧)라는 산을 오로지 화두로서 이겨내며 정진하고 또 정진해서 화두(話頭)를 타파(打破)하여 확철대오(廓徹大悟) 해야 됩니다.

죽영소계 진부동(竹影掃階 塵不動) 이요, 월륜천해 수무흔(月輪穿海 水無痕)이로다.

대그림자 비질해도 섬돌먼지 안 쓸리고, 둥근 달빛 바닷물 꿰뚫어도 물에는 자국 없네.

법고창신하면 세상에 꼭 필요한 종교된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전도선언을 하신 다음 사부대중과 수행을 함께 하시며 사성제 팔정도의 바른 길을 터득하도록 쉽게 일러주셨습니다. 관심(觀心)을 통해 사대오온의 무상함과 무아함을 터득케 하심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후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도가와 유가등과 상호교류하면서 선불교와 대승불교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교학의 해오(解悟)와 조사선의 증오(證悟)-철견(徹見), 철오(徹悟)-를 통해 함께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들어 '이게 무엇인가?', 양손으로 수인을 짓고서 '이 도리를 아는가?', 무단히 자리를 반분(半分)한다든지, 연꽃을 대중들에게 들어보였다든지, 할을 하고 봉을 치며 멱살을 잡고서 '일러라!' 한다든지, 눈썹과 눈을 들어 암시한다든지 하면서 목격전수(目擊傳受)하는 선종시대를 거쳐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와 같은 도리가 지금 이 땅, 이 세계에 인류와 역사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며 무슨 이익을 주고 있는가요? 〈중략〉

시대에 앞서가는 것은 차치하고 자신의 몸 하나 청정한 수행자로 우뚝할 수 없는 현실에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점점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갖지 못하자 세계 곳곳은 탈종교화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불교가 무종교, 투쟁의 견고한 시대에 존재하지 못할까 늘 염려됩니다. 문명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만큼 인간이 소외되어 비인간화의 길로 한 걸음씩 나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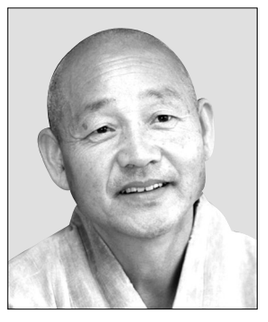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시대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 불교가 법고창신(法古創新)만 한다면 오히려 세상에 꼭 필요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람, 임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위진인을 추구하는 길만이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탓입니다. 지식이 충만하고 세상이 촘촘해질수록 화두를 드는 참선수행이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담박하고 간단명료하며 본질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혜종고선사께 편지를 보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당대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조류를 잘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린 우리 스스로 소멸해갑니다. 참사람의 길을 열지 못한다면 세상은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두가 들리지 않고 망상이 치열하다면 금년 이 동안거를 전후하여 위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찌 살 것인지 파적삼아 자문해보십시오. 힘이 들고 번뇌가 성하더라도 꾸준히 화두에 매진하십시오. 언제나 사람이 할 일은 수행뿐입니다.

圓通으로 장엄하는 삶

영축총림 방장직무대행 성파 스님



견색비간색(見色非干色)이요 문성불시성(聞聲不是聲)이라. 색성불애처(色聲不 處)에 친도법왕성(親到法王城)이로다.

색을 보아도 색에 간섭받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아니로다. 색과 소리가 장애되지 않는 곳에서 친히 법왕성에 이르게 되리.

총림대중이 겨울 석 달을 안거에 들어가는 이유는 범부의 안목을 성인의 안목으로 바꾸고 반야지(般若智)를 구족하기 위함입니다. 각자가 소임을 정해서 잡다한 일을 줄이고 오직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화두를 참구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복과 지혜를 논하지 말고 오직 대의심(大疑心)과 대분심(大憤心)과 대신심(大信心)으로 화두를 참구하다 보면 문득 능소(能所)가 끊어지고 단상(斷常)에 물들지 않는 경지가 드러날 것이며, 아(我)가 없고 인(人)도 없어서 시끄러운 티끌세상을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눈앞의 모든 일들이 거울 속에서 형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서 형상을 보는 것은 나에 걸리지 않으니 눈썹과 눈이 분명하여 법왕성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들음에 유혹되고 끄달리지 않아야 사방이 툭 트이게 됩니다. 무념지(無念智)가 나타나서 이쪽과 저쪽이 한 덩이가 되게 되면 속박과 해탈이 둘이 아니고 떠오름과 잠김이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계에서 한걸음 나아가면 모든 일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이 됩니다.

종일망망(終日忙忙)에 나사무방(那事無妨)이라. 불구해탈(不求解脫)하고 불악천당(不樂天堂)이로다. 단능일념귀무념(但能一念歸無念)하면 고보비로정상행(高步毘盧頂上行)하리라.

종일토록 바쁘고 바쁘나 그 어느 일도 방해되지 않네. 해탈을 구하지도 않고 천당을 즐기지도 않네. 다만 한 생각이 무념으로 돌아가면 높이 비로정상을 걸어가리라.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